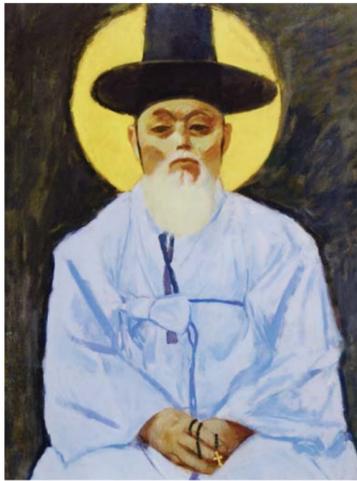


광주가톨릭박물관

광주대교구 최근 축성식 거행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전
전국 신자 화가 63명 참여
2021년 2월 4일까지 전시



문학진 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임직순 작 '성 정의배 마르코'

순교자의 고귀했던 삶과 신앙을 돌아보다

한국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토대로 꽃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존재한다. 오랜 박해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온몸으로 '소중한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순교성인 103위가 시성된 것은 지난 1984년이었다. 그해 여의도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가 성인품에 올랐다. 시성식이 열린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의 성인화가 확정되지 못했다.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천주교광주대교구(광주대교구)는 최근 준공된 광주가톨릭박물관(박물관)에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을 개최한다. 2021년 2월 4일까지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제로 열리며 광주대교구 순교자현양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

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복음화의 열정을 복돋운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성인화 제작은 지난 2017년 2월 주교회의에서 기획 추진했으며 미술계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전국의 신자 화가 63명을 엄선해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제작된 작품 77점과 기존 제작된 작품 26점(대여 15점, 영인본 11점) 등 모두 103점이 이번 전시본이다.

특히 대여 작품 중에는 문학진, 김태, 박득순, 임직순 등 뛰어난 화가들이 그린 작품 등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순교 성인화전은 지난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명동성당 '갤러리 1898'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대교구 주최로 열리게 된 것이다. 전시가 열리는 박물관은 광주대교구 주차장에 건립됐다. 올 11월에 별채한 남화토건 최상준 회장이 건물을 기증해 오픈했다.

박물관은 광주대교구 역사적 발자취를 담아낼 뿐 아니라 광주의 민중화 역사도 기억하는 의미도 지닌다. 또한 남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살

뜰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박물관 외관은 흰색의 단아한 구조로 차분한 분위기를 풍긴다. 2층 건물로 1층, 2층 모두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TF가 꾸려져 꾸준히 유물을 접수 받았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증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천주교의 역사와 아울러 순교 성인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미술사에서의 '초상화'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 '성인화'는 '영적 차원의 그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비록 순교자를 마주할 수 없지만 작품을 통해 대면한다는 느낌 때문에 웃음을 여미게 된다.

전시는 기해박해(1831년), 병오박해(1839년), 병인박해(1866년), 파리외방전교회 등 네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작품과 함께 보게 되는 성인 관련 기록, 사진 등의 자료는 성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고 지켰는지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순교 성인 가운데는 부모, 형제, 부부 등 가족 단위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인 최초 신부였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모습은 인자하면서도 신실한 분위기가 감돈다. 1846년 새남터에서 국문호수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처형 직후 "큰 뇌성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전해진다.

정약종의 둘째아들 정하상 바오로는 신유박해로 아버지가 순교하자 숙부인 정약용 집에 기거하며 교회 일을 도왔다. 성 정국보 프르타시오는 미천하게 살았지만 천주교에 입교 후 많은 이들을 도왔다. 성녀 김아기 아가타는 천주교 서적을 숨긴 죄로 체포됐으며 1839년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는 축사에서 "이번 전시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고귀한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순교 정신을 함양하며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상섭 화백이 띄운 '홀로 뜨는 달'

2021년 1월 17일까지 드영미술관

'달항아리가 전하는 그림의 미학.'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정상섭 작가를 초대, '홀로 뜨는 달을 위한 아다지오'를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2021년 1월 17일까지 미술관 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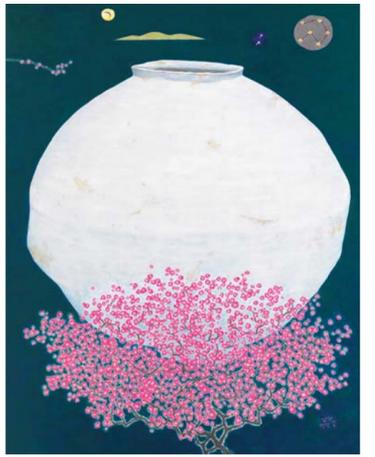
정 작가는 꽃과 나무, 새 등이 어우러진 자연풍경을 단순화시켜 재구성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소박한 색채가 더해진 화면은 간결하고 여백을 충분히 살려 개성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단아한 느낌의 '달항아리'를 소재로 삼아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달항아리는 의도된 울퉁불퉁한 형태와 함께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정중앙에 자리한 달항아리 표면에 얇은 색을 겹겹이, 치밀하게 쌓아 올려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감촉을 살려냈다.

기존의 그의 작품들처럼 달항아리와 함께 등장하는 꽃과 나무, 자동차, 집, 오리 등은 압축과 간략함, 단순함이 돋보이며 극단적 원근과 함께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물을 대비시켜 눈길을 끈다. 동화적 느낌이 풍기기도 하는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전한다.

전시 제목에 등장하는 '아다지오'는 음악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로 '천천히', '매우 느리게'를 뜻한다. 작가는 본연의 속도를 상실하고 자신의 주체성과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림의 미학을 제시한다.

전시를 기획한 김수정 학예실장은 "느리게 사



'blue moon'

는 것이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이 아닌 삶과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피에르 상소)라는 말처럼 타인의 속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한국미협 서양화 분과 이사,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남미술가회, 국제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강동권 작가의 초대 '12월에 피어난 장미'

2021년 1월 30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한 겨울에 만나는 장미의 향연.'

전시실에 화려한 장미꽃이 피었다. 아름다운 자태의 고풍적인 장미는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우제길미술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강동권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12월에 피어난 장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비롯해 꽃 작품 13점을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꽃'을 주제로 작업해온 강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꽃은 화려한 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특징이다.

강 작가는 "흔히 장미는 5월에 만나는 꽃이지만 그 안에 더 피어날 여지로 남아있는 꽃봉오리가 인상적인 12월의 장미도 아름답다"며 "나의 장미가



'사랑의 빛 20'

모든 이에게 사랑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평갤러리 개관 무등의 향연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축성식을 갖고 개관한 광주가톨릭박물관 전경.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정가 12,000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